

조선식한문의 어휘문법적특성

오 희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은 중국사람들이 쓰고있는 글자와 다른 리두가 섞인 조선식의 독특한 한문으로 씌여져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67권 513페이지)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은 조선식의 독특한 한문으로 씌여져있다.

조선식한문이란 리두가 섞인 한문이다. 다시말하여 조선식한문은 우리 나라에서만 쓰인 리두글자와 리두어휘, 리두어순 등 리두의 언어적요소들이 들어있는 한문, 우리 나라 민족고전에만 쓰인 한문이다.

조선식한문은 우리 선조들이 글말생활에 한문을 사용하여오면서 우리 말과 어휘체계, 문법구조에서 다른 한문을 가지고 우리 말을 더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진지한 노력과정에 이루어진 독특한 글말이다.

매개 민족어의 어휘체계와 문법구조는 자기의 특성을 가지며 이것은 해당 민족어의 고유한 특성을 이룬다.

우리 말은 어휘와 표현이 매우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짜여있다. 표현이 풍부하고 문법구조가 짜였다는것은 우리 민족어가 그만큼 발전한 언어라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에서 글말생활에 리용되면서 한문은 우수한 우리 말의 영향밑에 어휘와 문법에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루어진것이 바로 조선식한문이다.

조선식한문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독특한 어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어휘는 매개 민족어마다 서로 다른 력사적환경과 생활조건에서 발생하고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매개 민족어는 자기의 고유한 어휘체계를 가진다.

한자를 가지고 우리 말을 기록하면서 먼저 변화를 가져온것은 한자의 음과 뜻이었다. 한자의 음은 한자를 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 벌써 우리 말의 어음과 일정한 대응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말의 어음체계에 맞게 변하였다. 한자들의 첫소리자음이 순한소리로 되고 모음이 홀모음으로 발음되며 받침소리가 우리 말의 받침에 맞게 달라졌다.

우리 나라에서 한자는 음이 변한것과 함께 뜻도 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한자의 뜻이 달라진것은 대체로 두가지 류형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할수 있다. 하나는 우리 말을 표시하기 위하여 한자의 본래의 뜻을 변화시킨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자에 새로운 의미를 넣어준것이다.

실례로 《바위굴》을 의미하는 《洞》에 《동네》^{*1}의 뜻을 넣어준것은 본래한자의 의미를 변화시킨 경우이며 《遷》에 《벼랑》^{*2}을, 《藿》에 《미역》^{*3}이라는 뜻을 넣어준것은 우리 말의 어휘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자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 경우이다.

*1 《至於京城坊里之名 亦以洞稱》(《農巖集》 권34 《雜識》)

*2 《水出兩峽中 其兩崖迫水之路 東俗名之曰遷》(《雅言覺非》)

*3 《海中有菜 俗名爲藿》(《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우리 나라에서 한자로 우리 말을 기록하면서 본래의 한자에 새 뜻을 넣어주거나 의미를 변화시켜도 해당하는 우리 말 어휘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의 조성원리에 따라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썼다.

실례로 논을 《畓》^{*4}으로, 우무러진 땅을 《漥》^{*5}로, 풀을 묶어 단으로 만든것을 《迭》^{*6}로 쓴것 등을 들수 있다.

한문에서는 밭을 《旱田》이라 하고 논을 《水田》이라고 하나 오랜 옛날부터 논농사를 하여온 우리 민족은 《논》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므로 한자에는 없는 논을 의미하는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지형이 우무러진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 동네를 이루었는데 한자에는 그런 고장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으므로 새롭게 《漥》자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그리고 풀단을 우리 말로 《자라》라고 하는데 한문에는 그런 글자가 없으므로 《迭》라는 글자를 만들고 그런 의미를 넣어주었다.

^{*4} 《仍駕幸假宮之南新畓坪》(《三國遺事》 권2)

^{*5} 《海西人稱地之窪陷者曰漥》(《晝永篇》)

^{*6} 《本國方言謂束草若薪爲迭 茲乙阿三字爲訓》(《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우리 나라에서 한문을 쓰면서 본래의 한자에 새 뜻을 넣어주거나 한자에 없는 글자를 새롭게 만들어 리용한 글자를 본래의 한자와 구별하여 리두자라고 한다.

조선식한문에서는 한자로 우리 말을 기록하면서 우리 말의 어휘체계에 맞게 다음절단어들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한문에는 단음절단어가 기본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 말에는 두음절단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한자를 리용하여 우리 말을 기록하는 과정에 단음절단어가 두음절단어로 바뀌었다.

실례로 우리 나라에서는 한문에서 《盜》를 《盜賊》(도적), 《子》를 《子息》(자식), 《侈》를 《奢侈》(사치)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한자, 한문을 리용하면서 우리 말의 어휘적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절단어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한자다음절단어들은 몇가지 류형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째 류형은 조선식한자어휘이다.

조선식한자어휘란 한자를 리용하여 만든 어휘들가운데서 우리 민족에게만 고유한 말을 표기한 단어를 말한다.

한자를 가지고 언어생활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표현하여야 할 개념들이 생기면 한자를 가지고 그것을 표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 어휘가 본래의 한문에서는 쓰이지 않고 오직 우리 말을 기록하는데만 리용되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절단어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

실례로 고려시기 불교가 성행하면서 2월과 8월에 중들이 불경을 외우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풍습이 생겨났는데 이것을 《경행》(經行)^{*7}이라고 하였다. 《경행》은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이기는 하지만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쓰이는 단어이다.

조선봉건왕조실록에는 이러한 어휘들이 많이 쓰이었는데 짐승을 도살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을 《거골장》(去骨匠)^{*8}이라고 하고 어린아이가 어떤 책을 통달하면 그것을 기념하면서 음식을 차렸는데 그것을 《책씻이》(冊施時)^{*9}라고 하였다.

*7 《自前朝時 每春秋仲月 會各宗僧徒 誦大般若經 … 巡行街巷 以禳疾厄 … 謂之經行》(《世宗實錄》 권5)

*8 《去骨匠〈即屠牛者也〉》(《中宗實錄》 권10)

*9 《國俗小兒讀書竟卷 其父母飲食以識喜 謂之冊施時》(《正宗實錄》 권52)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에는 이러한 어휘들이 대단히 많다. 우리 나라 중세 민족생활을 보여주는 어휘들속에서 그러한것을 몇가지 떼들어보면 정치생활분야에서 《상감》(上監)*10, 경제생활분야에서 《봉족》(捧足)*11, 문화생활분야에서 《락폭지》(落幅紙)*13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그 조성의 측면에서 보면 한자어휘이나 의미가 독특하여 우리 나라에서만 쓰인 단어들이다.

*10 《國俗稱主上爲上監》(《正祖實錄》 권22)

*11 《捧足〈即保人之類 出錢財 以資其元役者也〉》(《肅宗實錄》 권31)

*13 《凡科試見屈人試紙 謂之落幅紙》(《古今釋林》 28)

둘째 류형은 한자표기어휘이다.

한자표기어휘란 한자의 뜻과 음을 리용하여 우리 말 단어를 표기한 어휘를 말한다. 한자표기어휘는 한문에는 없고 우리 말에만 있는 단어를 형태 그대로 기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어휘들이다.

한자표기어휘는 뜻이 우리 말에만 쓰이는 어휘일뿐아니라 단어의 형태, 음절수에 있어서도 우리 말 단어를 가능한것 그대로 나타내었다.

실례로 봉건사회에서 궁중에서 리용되는 음식을 《수라》(水刺)*14라고 하고 일부 계층들속에서 쓰이는 지방말을 《사투리》(四土俚)*15라고 하며 멋적이고 흥심이 없는것을 《심심》(佻佻)*16하다고 하는것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어휘를 조선식한자어휘와 구별하는것은 단어를 이루는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서는 그 뜻을 리해할수 없기때문이다.

*14 《水刺〈即進御膳之稱〉》(《中宗實錄》 권25)

*15 《俗言四土俚》(《明宗實錄》 권9)

*16 《佻佻不適意之稱 方言也》(《明宗實錄》 권2)

한자표기어휘들가운데는 우와 같이 한자의 음을 리용하여 우리 말을 표기한것과 함께 한자의 뜻을 리용하여 우리 말을 표기한것, 한자의 뜻과 음을 아울러 리용하여 우리 말을 표기한것들이 있다.

실례로 밭면적을 헤아리는 단위인 《날가리》를 《日耕》*17으로, 지방관청들에서 물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 《무자이》를 《水尺》*18라고 쓴것은 한자의 뜻을 리용하여 우리 말의 단어를 기록한것이며 우리 말 부사인 《마침》을 《適音》*19으로, 《하물며》를 《況旆》*20라고 쓴것은 한자의 뜻과 음을 아울러 리용하여 만든 어휘들이다.

*17 《一日耕所穫不過三十餘石》(《宣祖實錄》 권97)

*18 《水尺〈外邑汲水漢也〉》(《吏頭便覽》)

*19 《適音移兵之日 嶺東倭賊四百餘名出來臨湍村舍》(《農圃集》 권1)

*20 《況旆白骨徵布鄰族侵奪取》(《儒賢必知》吏讀彙編)

이러한 어휘들을 리두어휘라고 한다.

한자표기어휘들가운데서 리두어휘를 따로 강조하는것은 우선 리두어휘에 리두의 언어적인 요소들인 리두음과 리두자를 리용하였기때문이며 또한 한자표기어휘와는 달리 대체로 리두어휘에는 그 표기변종이 없기때문이다.

리두어휘는 오랜 세월 켜여오는 과정에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언어생활에 리용되면서 리두문헌에 고착된 어휘들이다. 일반적으로 한자표기어휘는 표기변종이 있으나 리두어휘에는 그것이 없다.

실례로 봉건사회에서 왕족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인 《나으리》를 《進賜》^{*21}라고 쓰고 관가에서 기물을 관리하는 노비인 《정자》를 《城子》^{*22}라고 쓰며 관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것을 《발팔》이라고 하면서 《白活》^{*23}라고 쓰는것을 들수 있다.

^{*21} 《凡人稱王子宗屬等曰進賜 尊之之辭》(《中宗實錄》 권10)

^{*22} 《各司奴隸典守器物者 謂之城子》(《世宗實錄》 권15)

^{*23} 《俗云陳訴曰白活》(《明宗實錄》 권2)

실례의 《進賜》, 《城子》, 《白活》에 대하여 한자로 읽어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을뿐아니라 우리 말 단어의 본래의 형태에 대해서도 리해할수 없다.

이처럼 우리 식 한자어휘, 한자표기어휘, 리두어휘 등 우리 말을 기록하는데 쓰인 독특한 어휘를 가지고있는것이 조선식한문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한자의 음이나 뜻을 리용하여 우리 말을 표기한 력사는 매우 오래다.

고구려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朱蒙)^{*24}으로, 옛땅을 수복하는것을 《다물》(多勿)^{*25}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때 벌써 우리 식의 한자어휘가 쓰이고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24} 《扶餘俗語善射爲朱蒙》(《三國史記》 권13)

^{*25} 《麗語謂復舊土爲多勿》(우와 같음)

조선식한문의 특성은 다음으로 우리 말의 언어적규범과 언어관습을 따른 문장이 쓰인것이다.

조선식한문에서의 문장은 우리 말 어순을 따르고있다.

우리 말과 한문이 문법적으로 구별되는것의 하나는 어순이다. 문장안에서 단어들이 놓이는 자리는 해당 민족어의 문법적규범에 의해 규정된다. 언어의 문법적규범은 민족어마다 특성이 있다.

우리 말과 한문의 문법적어순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술어와 보어의 위치에 있다. 우리 말에서는 보어로 되는 대상이 술어의 앞에 놓이며 진술의 내용을 이루는 술어는 보어의 다음, 문장의 마감에 놓이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문에서는 술어가 보어의 앞에 놓인다.

조선식한문에서는 한문의 고유한 어순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말 어순에 의하여 문장이 이루어진다.

실례로 《진박에서 망보는 루대를 지키던 왜놈을 쏘아 목을 베여가지고 와서 바쳤다.》를 《陣外望臺直守倭射斬來獻》^{*26}라고 기록하고 《금산의 적은 대개가 먹을것이 없어서 생버를 베여다가 먹으며 목숨을 이어간다.》를 《錦賊大概乏食生稻刈食連命》^{*27}라고 쓴것을 들수 있다. 《陣外望臺直守倭射斬來獻》과 《生稻刈食》은 우리 말 어순에 따라 쓴 문장이다. 《전날

무주에 들어보냈던 고을아전 리호연》을 《前日茂州入送縣吏李浩然》^{*28}이라고 쓴것도 이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장은 한문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26, 27, 28} 《瑣尾錄》 권1 《壬辰南行日記》

조선식한문에서 우리 말 어순을 따른 문장은 사실상 우리 말을 기록하면서 한자어휘들을 우리 말의 어순에 따라 배열해놓은것이다.

실례로 《君之顔面恰似前等內朴書房主樣》(《記聞叢話》)^{*29}, 《汝是兩班則何不坐於汝矣舍廊作此等行也》(《溪西野談》)^{*30}, 《地官吾山所見應政丞出》(《溪西野談》)^{*31} 등 문장은 전형적인 조선식한문문장이다.

^{*29} 《자네의 얼굴이 흡사 이전 원님때 박서방님의 모양이다.》

^{*30} 《네가 량반이라면 어째서 너의 사랑에 앉아있지 않고 이런 걸음을 하느냐.》

^{*31} 《지관이 우리 산소를 보고 응당 정승이 나온다고 하였다.》

조선식한문에는 우리 말의 언어습관을 그대로 기록한것이 있다.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경향적으로 나타나는 말투는 민족마다 다르며 같은 민족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업, 지식정도, 나이 등에 따라서 일정하게 차이난다. 이것은 대체로 언어생활과정의 습관을 따른것으로서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여주는 특징의 하나이다.

한자를 리용하여 우리 민족의 다양한 생활에 대하여 쓰면서 우리 말에서만 있는 말투를 그대로 기록한것은 고유한 한문과 근본적으로 차이난다.

실례로 《지금까지》를 《今至》^{*32}로 쓰고 《한사람씩》을 《一人式》^{*33}으로 쓰며 《바람편에》를 《風便》^{*34}으로 쓰고 《처cken》을 《妻邊》^{*35}으로 쓴것 등을 들수 있다. 《至》, 《式》, 《便》, 《邊》은 《…까지》, 《…씩》, 《…편》, 《…켄》 등 우리 말에서 흔히 쓰는 입말식의 말투를 기록한것이다.

^{*32} 《賊入錦山 今至五六日》(《瑣尾錄》 권1 《壬辰南行日記》)

^{*33} 《民田一結每一人式募定》(《玄殷山日記》 권5)

^{*34} 《風便禾苗之聲 村犬皆吠》(《千一錄》農家總覽)

^{*35} 《妻邊奴子所生 如啓施行》(《太宗實錄》 권28)

이처럼 조선식한문에는 우리 말의 어순과 어투를 그대로 기록한 문장들이 있다.

한자를 리용하여 우리 말을 기록하면서 우리 말의 어휘, 문법 등을 그대로 쓴것은 흔히 리두에서 리용한 방법이였다.

그러므로 조선식한문은 사실상 리두를 섞어서 우리 말을 될수록 그대로 기록한 한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서사방식이 생겨난것은 어휘와 문법에서 차이가 있는 한문을 가지고 우리 말을 정확히 기록하려는 진지한 탐구와 노력의 결과에 이루어진것이였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다.

앞으로 우리는 조선식한문의 어휘문법적특성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민족고전번역실천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조선식한문, 한자표기어휘